

癸酉夏粧 要覽



[해제]

이 자료는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된 미 해제 자료로 “숙종덕왕 즉위연간의 한지상이 이시니 성은 퍽니 오” 癸酉夏粧 要覽에 수록된 국문 자료이다.

[원문]

癸酉夏粧

要覽

본조총신 박퇴보전
 숙종덕왕 즉위언간의 한직상이 이시니
 성은 빅니오 명은 저광이라
 일직 용문의 올라 벼소리
 이조총판의 잇시되 아달형제을 두이
 장조난 니성하고 초조난 낙낙지
 삼삭의 못하여 모친이 그세하시니
 혈혈헌 거동은 초모보지 못할네라
 이러구러 세월리 열류하여 나히
 오세을 당하미 그오오와 직결노
 스람을 달닌지라
 총판이 그부인 업스물 미일
 헌탄하며 여조을 소학을 가리치니
 총호을 능히 아난지라 찬판어게
 일직 용문의 올라 벼살하여
 이름의 국충 가득하고 가산이
 요조하나 실하의 일점혈육이 업서
 형님의 아달노 솔양하여 비록
 족카효도 기출이 다람업서 세월을
 뉴정히보닉 그 정속하미 기출갓치 여기스
 연광이 십팔세라 부모군훈하미 니조판서
 이집의 미파을 보닉미 경이
 허훈허거 날바조시니 활형하실식
 일흠을 티보라하고 조난 스원이하니라
 국운이 망극하스 티보 진급지할 겸하니
 국엄을 감추하며 부모의 깃거하심이
 총양 업난지라 송이 기특이
 녀이사 일흠을 헌임원의 붓쳐
 벼소리 응교의 잇난지라
 잇씨 둥궁전민씨 문왕빅 탄님의
 덕형이 잇난지라 후중장씨난 미천헌집
 여조로 나라의 은총이 괄하스
 미일 중전민씨랄 히코져 하더니

이적의 후궁장씨 아달을 나흐니
상이 조의지정을 날노 더어스
일일의 삼초직을 친님하시니
중전민씨 소헌 상의쓰살 승순하스
후궁의 조로 님하스 유조랄
안아보시며 사랑하시기라 상과갓치 하시난지라
일일은 중전게서 후궁의 가실식
등궁의 중씨업거날 유아랄 보시니
이무 죽은난지라 슬푸다 중전기오셔
엇지 그리흔 흥게을 뜻하여시리요
놀나 문밖기 나와 환궁하시후
쥬상이 드라스 덕경실식 하시며
친님하시니 장씨울며 두달하되 등전게오셔
그씩 환궁하신후 다란사람은 오지안니
하여나니라 시여와 덕인을 니구쥬촉하시
가헌한 등전민씨의 음히라 하시고
민중전을 닉치시고 후궁 장후비로
중전왕비를 봉하시니라
직설 남인지상 이모 상의 뜻설
슬아랑하여 중전민씨 불측함으로 즉갈하니
상니 더욱 진노하스 잇세난
숙종덕왕 즉위 십륙연 지스라
중전왕비 탄일니 당하스 종실이며
만조칙관이 초리로 현석하며 만식을
부르더라 이날 상니 남인의
흠손와 후궁 문흠을 심각하스
제신을 물이치시고 중전민씨을 닉치시고
응교 박티보 직소의 잇서
그변을 알고 즉씨 헌님원의
드르가 여러 솔다려 그일을
설화하시고 상소을 지여 올일식
병조판서 요두인과 판서이게 화도승지
김시현 부승취 일전덕히 하도경보전
황희감스 서문은 경승감스 서문은
경승감스 김동희 의주부윤 심비홍
남원부 니빌역 방척목스 심제몽
공도총판 니경 틱스경 김홍부
티혹스 흥숙연 지평 니호총

팡영 익석앙 등이 송소를 올니이
 잇씩심야 삼경니라 상소 스희을
 보시고 상니 디로을스 경원의
 전좌하시고 금부도스를 불너 나중이을
 다랑허라 하시고 디전별감을 호형허야
 우견 오을연을 조부드리라 하시니
 위엄은 상슬갓고 등축은 복일리요
 써난소리 장안니 친눈난닷 뉘안니
 두려허리요 잇씩 상소흔 디시들리
 서로보아 왈이일을 엇지허리요 하시거날
 박티보디왈 군등은 엇지점리 놀닌나노
 몸이 님의 허허여 군신지의를
 극진의 흘진디 디법총 총절노
 님군을 섬져 후세의 착흔일흠을
 전홀가 바라나이 엇지 저리하고
 후세의 남의을 면허리요 가히
 혼심허도다 하니 티혹스 흥슈연
 니말을 듯고 티보의 등을
 어라만지며 갈로디 여러 총신등의
 두번더 못할말 니로다 하니
 티보왈 여러디감을 어전의 드려가음
 문하시거든 닉식으로 시록소겨 올연이왈
 그려치 안니허다 처암 혼가지로
 설스 허엿다가 엇지 그디만
 스텐디의 보닌리요 하며 어연허더니
 이윽고 나장니 절닌로써 나오디
 셔여왈 슈두한 오두연은 어디잇나요
 흥난소리 천지진동 허거날 두연니
 잡피드러가 천허의 복한디 상이
 디로허여 용쌍을 치시며 디질왈
 너의 송형니 일본도 보국충성이 업고
 디관 불충흠무로 과안을 비방허니
 저러하고 엇지 국가지신이라 허리요
 하리시며 네가 슈두의 조승니
 알리라 허신디 두연니 황황급급허야
 이러나 돈슈왈 소신니 일즉
 국운을 님조와 슈십연을 식복허와
 죽운니 망극홀니 엇지 추흔들

국가을 비방호닛가 소신니 나히만습고
 별소리 판셔의 잇스오미 슈두의
 참여하여 나이다 송니 다시문왈
 그러면 은전설두호고 상소쓰스람 어딴잇나요
 호시며거날 티보 처연이 티왈
 소신니 호연나이다 호고 드러가
 복지호운티 오두연과 이기화와 듀현
 삼인니 가만니 티보다려왈 다란 스람은
 너치말고 우리 삼인니 나당호고 죽조흔티
 티보왈 그러치 안니호다 지당호기난
 일반이니 닉세로 미루소서 삼인니왈
 우리난 년광니 만호여 세상영웅을
 알어시니 이져 죽어도 혼업사디
 그딴 청춘니요 쏘호 출세호여시니
 그부모의 경송이 절박호은지라
 엇지 그딴 한스랑 하리요
 부디 한스랑치 말나 호엇더니
 잇디상이 티로호스 티보다려 문왈
 네가 일정상소랄 썻나냐 호신디
 티보티왈 소신니 짓고 썻나이다
 한디상이 다시문왈 경중이 잇셔시니
 초초로 알의라 호신디 티보지비왈
 군신부조난 일체오니 부모허물히 잇스오면
 읍간호오미 올스오니 전호게오서 사신의
 말삼과 후궁의 불충한 말삼을
 듯삼고 왕비을 닉치시리 호오시니
 엇지 신호되여 간치안니 호오며
 후세의 불충한 말을 듯스오리닛고
 복원 성송은 술피압소서 셔상니
 티로왈 닉절일의 너을 스랑호기로
 둥이 너가죽가을 비방호여 후히아라
 조정을 요란케호니 엇지 불충지
 안니호리요 호시며 바로 동틀의
 울여미라 하신귀 나장이 달여드러
 웅스로 스지을 먹여 안치거날
 티보 울며간왈 전하엇지 망영딴은
 일을 흥호시난잇가 소인니 비록 나히
 적스오나 죽히 충의랄 알만호오니

상소하온 일니 위국충성이 안니오면
 죽지을 싱각지 안니하옵고 직안하오릿가
 복원 전하난 두로 슬피압소서
 상이왈 무언하고 그몸을 위션
 쥬장으로 질으라 하신디 좌우의
 셋던 날줄 일시의 달여덜려
 슈증을 갈나좁고 낫낫치 망하니
 철석니 안니여든 엇지 솔기을
 바라리요 티보 다시간왈 인간의
 불민흔 빅성니 본첩를 박디하고
 소첩을 둥희네게 지의 허물을
 아지 못하오면 피구경 위티망신하난
 죄잇습거든 하물며 천하엿시 막중왕비을
 닉치려 하오니 그러하고 엇지
 일국부모 되시며 무슴 면목으로
 신민을 정계 하오리잇가 복원
 전하난 집피싱각 하압소서 조강지쳐난
 불헌당 니오니 국모랄 엇지
 니무로 닉치시려 하시난잇가 상니
 디로왈 너지은 죄도 적지
 안니거든 과인을 디하여 픽국망신
 하리라하니 고금의 싹니업난 역신니로다
 니몸니 철석니 안여들 살기을
 바라리요 하시시고 악석우의 두물름을
 쏘니고 스모총으로 닉리씨리라 하시니
 이형벌은 담실단조흔 법니라 슬푸다
 본국충신 축한치가 그디지 둥하기로
 사칭을 도라보지 안니하고 싱살니
 점점니 써려져 유혈리 성천하둥니
 쏘니형벌 횡하신들 좌우저신니 감히
 님을 열여 한말을 간치못하고
 서로 도라보면 안니썰니 업난지라
 티보 쳐연니 안식을 변치
 안니하고 갈오디 집간하여 위국하난
 죄가 그디지 둥하와 니몸쓸
 형벌을 쓸르하시난 잇가신니 죽기난
 셉지안니 하오나 초야의 난송요
 망국지탄 잇쓸 ㄱ 저어하나니다

상이더옥 디로왈 니지언죄도 적지안니
 흐건니와 전의 니몸을 싱각하여
 십분 안흐거든 니디지 국정을
 요란케 하나나 그려하고 쏘엇지
 살길을 바라리요 늘노하여 날을못하랴
 니말리 도시 간신니로다 동국스빅연
 너갓탄 간신니 업난지라 너을죽여
 만조를 본받게 하시라 호령이
 추산갓타니 제신니와 입을정치 못하며
 흐출첩빅 흐난지라 티보왈 신다려
 간신이라 호오니 국운신총 머르지고
 부조효조 쓸씩 업난이다 국정요란케
 되압기의 신니 갈총호와 상소호엿습더니
 간신이라 호오시니 오륜니라 쓸씩
 업스오며 군신유의 초하려절 부조우진
 출언형실 천만세 유전호은 공망의
 말씀니 금닐 전호도 보왓것와디
 신총효조 쓸씩 업스오니 동국스빅연의
 니저 이디지 혼심호울잇가 조선니
 비록 소속니오나 소중화라 호압끼난
 예의로 총호압더니 금일노 보오면
 니적나라 을니이 더호오릿가 소신니
 이제죽어 득기난 셜지 안호오나
 스빅년 종모스목 족이 만분
 위티호압기로 불승통곡 하나이다 복원
 성상은 김피싱각 하시압소서 하며
 슬피 통곡호거날 상이더옥 디로호스
 가로스디 나라흥망이 너게 미엇다야
 티보왈 공부조의 호신말삼 슈신제가
 명천하라 호오니 신민도 흑이갈오
 불평호오면 일가져속이 상의호와 흥호오며
 후탈업스오며 국정니 환난호오면 만조빅관니
 상의호오신 후의 흥호오면 시비업스오니
 복원 전한난 구구스정을 세세니
 싱각호소서 익미호오신 왕비을 니치시지
 마압고 괴특한 티보랄 살여쥬압소서
 옛석 초픽왕 도룡빙은 하의제일
 니오나 스강로 농히만을 썩여시나

범정의 말을 아니듯고 회화의 환을
 면치못흐 옛스오니 신니 불승형장흐와
 이제 죽스와도 절절겨만히 압원거난
 원국 충경이오나 폐흐 불의흔 일을
 집피 심각흐압소서 송니더옥 디로왈
 니말리 간교흐고 만고의 역신니라
 엇지 일신을 살여두리요 도승지를
 명하여 좌우나줄을 지촉흐스 닐분도
 스정을 두지말나 흐신디 나조리
 봉명흐고 낫낫치 영디로 시형흐니
 무춤이 씌어져 유혈니 성천흐여
 속절업시 죽게되여시니 초목금슈도 슬허흐난닷
 보난스람 누안니 낙누흐리요 가련한
 저티보랄 송복갓탄 구든절과 하슈갓치
 말근마암 득은들 고찰리요 상니
 분기충천흐며 용상을 밀치시며 가로스디
 네아모리 만단 의결흐여도 과인니
 엄의듯 품영흐여시니 네말노 조초
 정흔닷 슬파하리요 흐시고 종시씩
 다를쌌시 업거날 티보다시 알외디
 전흐기오서 간신의 말삼과 후궁
 불측한 말삼을 신청흐라 불의를
 횡하스 신의 말삼을 간교간신니라
 흐오신니 이난 결쥬갓탄 포악을
 용양비난의 충절을 굽피고져 흐시난닛가
 상니더옥 디로흐스 옥슈로 용상을
 썩드리시며 디줄왈 네중시 과인을
 비방만 더흐니 엇지분치 안니리요
 좌우나장을 호령흐엿 사소총으로 나리씨어라
 흐시니 나줄니 별찌갓치 달여더려
 슈업시치니 철석간장니 아이여던 엇지
 살길을 바라리요 티보 정신을
 슈십하여 다시간왈 지금 왕후성덕이
 고지임스의 비기스 이룩니 열복흐물
 우익흐온 초동목슈라도 왕비의 익익흐물
 다아나니 조물리 식기흐고 구운이
 망극흐와 소인니 용스흐와 요얼니
 식기흙으로 퍽옥무의 오신 왕후을

불촉흔 말삼으로 불촉흔 온 날 흥호오시니
 그려호고 신민의 부모되여 사직을
 안보호오릿가 복원 성상은 전일현심을
 회복호스 왕후의 익히호심을 통촉호오시면
 신이 죽어도 한니업스 오리니
 집피싱각 호압소서 군부난 군신불민호와
 스빅연 스딕왕업니 일조의 한심케
 되어오니 어서 밧비 죽여유오소
 상디로왈 저려흔놈니 어디 잇스리오
 국가을 제마암디로 비방호니 엇지
 절분치 안니호리요 좌우나저을 호령호스
 화형으로 거형호라 저놈을 화철노
 티와죽이라 호시고 분괴을 이기지
 못호시니 올니나이 빅탄니 오느리나
 이전철리라 빅탄의 화광과 전철리
 화리난 스람의 정신을 놀닌난지라
 즈철노 티보의 만신을 지지며
 스죄호라 호시난 호령니 장안의
 뒤놉난닷 호신디 티보 천연부면
 안식호고 갈로디 소인 총후여로서
 국운니 망극호운지라 님군의 불흥호오신
 비빅압고 신즈지도의 엇지간디 안니호오릿가
 죽기실허 호압고 솔기조화 호압기난
 님닌상쇠라 소신도 쏘호스람 이오니
 엇지 죽기을 두려안니 호오릿가
 간신의 엄희와 오여의 간쇠로
 군부의 불의을 보오니 청송갓탄
 구든총성 곳칠길 업스오니 이제어서
 죽이시면 신니죽어 구천의 도라가와
 열세왕 계신고디 드르가게호의 복지호와
 호와시원 극통쓰언원정 낫낫치 쥬달호오리다
 이제 소년이 득은후의 중전왕비
 녹호오신 환을 구호리 업스오니
 전호의 불척호오신 성노랄 간호을
 신호 업스오시니 엇지 혼심치
 안니호오릿가 존호 국스을 싱각지
 안니호압고 일단 포학만형 호오시니
 어서죽여 듀압소서 상니더옥 딘노호스

좌우스랄 형별흐스 티보의 만신을
 지지라 가스축국 비설하여 실마아을
 안고니 그만치 흥혔다가 너게
 불축한 말만닷고 그저말어 초리를
 부다 올이라 흐신티 무스일스에
 달여드려 좌우의 화철노 티보의
 만신을 닷난티로흐미 괴괴이 술탄
 악취의 보난 스람니 눈코을
 두루지 못홀네라 잇디 티보난
 어연부동하여 인인스악하여 좌우무스를 꾸지져왈
 화철니 닝기잇스니 더덥기하여 질하며
 추호도 요동치 안니허거날 상이
 티보을 말을 드라스 기가막혀
 말숨을 못하시다가 저신을 도라보시며
 가로스디 님이 저놈의 독한줄을
 의왕의 아라나니 년전알겨의 티보의
 르봉노관을 정하였더니 다람스람은 슈건의
 물을적서 봉노히티 화로쇠요 부부도
 퍽탄니라 수건이 안니면 향노
 밧드지 못하난디 저놈은 슈건도
 아니가지고 향노랄 바드니 화기치열해야
 두손니 타니 괴람이 흘너도
 종시 낫치 안니하고 비러후의
 천천이 노히니 굿씩의 독한놈으로
 보아시나 엇지져디 지독한줄 알라시오
 경네쥬랄 만히보아시나 저리 독하고
 모진놈이 천만고의 어딴잇시리요 하시야
 영의정 김덕과와 우의정 니문슈 간왈
 티보비록 소인니오나 시비난 고스하압고
 총절리 아람답스오니 복원 전하난
 노랄 총어소서 무수히 간할초의
 호련 귀장니 병후쥬소의서 바로
 절닉로 도라가 복지쥬왈 티보의
 간한오 말삼니 스침을 도라보압지
 안니호오니 위국충성은 송국 갓스오나
 전하 위국지신의 간인을 신청안니사
 과도히 축노흐스니 귀지 흥호오시니
 만일 국가의 충신직간니 업스오면

사덕이 위티할가 ㅎ난니다 상니
 평을병취랄 이승ㅎ시디로 불열ㅎ시며 ㅈ로
 불너시라 ㅎ시더라 티보 다시간왈
 신이 닷스오니 닐월리 발거 안니라
 성쥬가 박다하압고 쥬옥니 보빅안니라
 어린신하 보빅라 ㅎ오니 국가의
 불평ㅎ은 일이 잇스오면 신ㅎ가
 간ㅎ오미 솔로 ㅅㅅㅎ오니 청천어ㅎ
 감ㅎ압고 ㅅ일니 국림ㅎ온디 위국충성니
 안니오면 ㅅ지 죽기랄 싱각지
 안니ㅎ오릿가 신니 죽스와도 앓갑지
 안니ㅎ오나 ㅅ옥갓탄 중전왕비 이곱푼
 한을 푸려쥬리 업삼고 ㅅ발학당
 부모봉양 전할디 업스오니 지ㅎ훈ㅅ
 이라도 봉망산적 막한디 두견조
 ㅅ슬지여 ㅅ일이 업스오니 일노
 ㅎ이로소니다 상니왈 저려한 독ㅎ고
 흥한놈니 어디 잇셔리오 제신이
 함쥬왈 ㅅ지청청 송ㅅ ㅅ할슈
 업스오니 ㅅ피싱각 ㅎ압소서 싱니왈
 과인도 평일 저랄 ㅅ랑하여시니
 이제 안세코져 하나 ㅅㅅㅅ죄랄
 더리오니 ㅅ지 분치 안니리요
 ㅅ작 ㅅ죄하고 도라가라 ㅎ신디
 티보왈 부절업스오신 ㅎ코 거두오스
 어서 슈이죽게 ㅎ읍소서 신이
 죽은후 낙월공산 김푼밤의 귀축도
 우압거든 축ㅎ도로 닷지마압고 소신출신
 박티보의 원ㅎ으로 아압소서 그러ㅎ오나
 금아삼경니라 ㅅ노난 소소하압고 한풍은
 소랑ㅎ오니 옥체상ㅎ실가 ㅅ신일염 니로소니다
 상이더욱 놀니왈 저려한 출신이
 ㅅ지 과인을 비방ㅎ나 노무스랄
 명ㅎ여 화형을 너ㅎ시며 나장으로
 ㅎ여곰 ㅅ모창으로 말을 못ㅎ게
 ㅅ을나리 ㅅ으라 거의 ㅅ경니
 당ㅎ여시나 ㅅ신을 슈ㅅㅎ여 다시간왈
 왕비랄 ㅅ치시려 ㅎ오시면 세ㅅ동군을

ㅎ면목으로 쉬쉬위 ㅎ오릿가 ㅎ며
 무슈히 체업ㅎ더라 니월갓고 쥬옥갓탄
 티보난 삼경의 당한형별 스경의
 당한화형 오경을 일으니 종노의
 식복소리난 쩡쩡ㅎ고 궁평슈직 총능소리
 쩡쩡ㅎ며 원근 계명성이 덜이난디
 ㅎ날갓치 너룬썰의 티보 안잔난
 거동이 스장 너른고되 오죽섯넌
 고목화 만나다타고 썩리만나 마일과을
 향ㅎ난닷 큰숫 ㅎ덩이 어형의
 노엣난닷 그형스과 거동을 차마보지
 못할니라 그러ㅎ나 국승을 한심니
 녀이며 왕비익미 ㅎ심을 말슴ㅎ기에
 당ㅎ나 추호도 번서 석안ㅎ니
 보난 스람이 라기랄 천만고춤
 신은 박티보라 ㅎ더라
 장안닌민이 보고가면서 착ㅎ다 노리ㅎ여왈
 익답고 답답ㅎ다 엄형중의 못신응오
 뉘라셔 살여니라 한심ㅎ고 가련ㅎ다
 창송갓치 구든삿과 녹슈갓치 쇠로온총성
 엇지ㅎ여 구필ㅎ야 듀상니 불명ㅎ야
 속절업시 만고춤신 죽어도 다만조난
 무슴닐노 저디지 송구을고 용상의
 성닌쥬상 무섭기야 무섭도다 장판지춤
 조춤인가 조상ㅎ시고 흥문너 잔취란가
 피시난 익와 건마난 죄 간ㅎ리 전니업다
 간관도 부절업다 당상학발 늘근부모
 당ㅎ청춘 절문안희 문밧기와 우난거동
 차마 못볼니라 괴막혀 우난소리난
 뉘안니 낙누ㅎ리요 어와초야 빅성들아
 강호의 현쥬타고 사히로 노아다가
 박춤신 죽거든낭 향닐화로연을 무어익시고져
 익시고져 무리춤신 익시고져 남산의
 시문송씩 돌괴로 버려니여 총열문
 정히짓고 춤쥬제향 ㅎ조더라 상이
 니조판서 민학을 도라보시면 갈로스디
 티보난 살기무석니라 만변셔전 니라도
 쪽이업난 몸니로다 ㅎ신디 민악니 쥬왈

비록 말씀은 축노하시오니 총절은
 기턱호오나 복망 정상은 안심호압소서
 상이 씩각다 갖호여 형조로
 여조스바다 성조의 조문들라 호시고
 닉치시니 티보 권문밧기 나와
 정신슈십지 못하거날 좌우제신니며 날문친척니며
 구호여 정신을 다시 진정하며
 좌우랄 도라보며왈 니몸이 명죄경각이나
 술기랄 바라리요 바라압건디 열위의
 공은 부딤 나죽은후의 죽기로써
 간하여 가련한 왕비의 평심을
 구호소서 하거날 상소중의 날흠잇난
 제신니 다가로디 함괴일을 초하고
 악형은 조랑하여 스경의 날어러시니
 무양춤괴한 중의 현차송하미 조디의
 당하미라 다람업서 무슈이 위로호여
 형옥으로 전송호더니 형명의 형조판서
 위의랄 갖초아 예법을 주문한디
 상니전코 호스금 부로갈쇠 만조빅관니며
 종안빅성니 구름 못닷호며 일가친척이
 위로왈 엇지술기을 바라리오니 몸죽거든
 항강슈의 위국원한을 빅세호여 다란디
 못지말고 남산호의 무더훈 빅니라도
 나라을 향호여 빅연단심을 변치안니호고
 우리성상을 총의로서 복간호여 현숙호신
 고전왕비를 황복호시게 호올거시니 부딤명심
 호소서 삼닐을 금부의 수겁삼닐
 호여더니 상이비을 닉치시고 티보난
 진도로 정비호시니 그부모와 원근친척이
 다슬혀 호더라 티보의 몸니
 화독은 치열호고 상처자독은 무수하여
 괴동을 못호고 식음을 전퍼호니
 부도스 병세랄 보고 등노봉변
 할가호야 연유을 함전의 쥬달한디
 상니 진노하스 도스을 쑤지저왈
 가다죽어면 말연니와 막중국법을 니라셔
 거명한니 너도 티보와 갖탄농 니로다
 죄적지 안니하나 십분용스 호시와

급피질을 써나라 허신디 도스황겁하여
 스빅허직허고 나와지를 쇠허니 석닐
 발횡할쇠 교조의 실어 남디문
 밧그나서니 만조빅관이며 원건친척니 옹위허여
 니별할쇠 만조빅관니 다위로허며 총찬왈
 뉘라서 옹방비난을 총친이다 허더오
 그딤의 총절은 만고의 제일리라
 우리녕히 본밧지 못허나 그딤죽은후의
 놓헌 일흠은 천쵸만세의 유전케
 하리라 북횡노의 병던몸을 조심허여
 무스니 득달허기랄 바라노라 죄난
 함기짓고 그딤후노 스지의 드니
 우리등니 허면몸으로 넘어 소정을허며
 그딤부모을 디하리요 티보디왈 티보난
 죄악을 하날과 옛조와 님군을
 총성으로 섬기지 못허압고 슈천니
 스지의 가오나 이병던 몸니
 중노고흔 될닷허오나 토중고흔은 셉지아니
 허오나 왕비을 황궁치 못허오신 날이
 철천지한니 골슈의 사맛초오니 구천의
 도라가오나 바라건디 어러지 공은
 숙기로써 간허와 티보의 고힌을
 위로허압소서 오두연니 티보의 타고쌌만
 남은손을 좁고 세업만만 와와
 디보 진정허여 적소 무스히
 득달몸을 천만보둥허여 지닌면 우리성쵸의
 일월지광을 노의스 천횡으로 환송허기랄
 바라노라 서로 써나난 정이
 연연한중 그딤병중세 만분위중허니 부디안심
 허라허며 무슈니 익통하더라 상니
 전코허스 제신을 님신허라 허시니
 저신다죽고 업난지라 상이 성노릭
 발하스디 전별감을 호령허스 흥영기랄
 장장 이들에 제신을 나뉘허라
 허시니 빅관니 서로 도라보아
 창황분쵸이 드러와 복지허온디 상니
 디로허스 쑤지저 가로스디 경등니
 불충한 티보을 위허여 별노히가

무슴말니 장황하며 티보의 썬을바다
 국정을 요란케 하고저하니 그려하고
 엇지 신즈지도 리허리요 그리
 유정홀신디 엇지 진도찾지 전별아니
 하였나 모제신니 청죄왈 신정니
 티보만 위함이 안니로소니다 폐종의
 불닐을 진간하압다가 스싱니 경각의
 잇스오니 티보만일 죽스오면 성주의
 실덕하옵시 미되올가 하올분더러 진도상
 하압다가 티보만 스지의 보닉오니
 전별치 안니하오릿가 그리디 지중하와
 이럿탓 진노하오시니 황황송을 하압건니와
 신동의 원쥬안니요 목석니 아니압거든
 엇지 스지의 스난 고훈을
 전송치 안니하오릿가 복원 서상은
 세세히 통촉하압소서 상이 니혁키
 심각하스 가로디 경등을 다사리고
 전하나 심분안성 하나니 츠후조심하라
 하시니 모든제신이 고두슈병 하더라
 잇디티보 부모고 하직영별왈 소조평칭의
 미천시니 님군을 충효로 급소부모
 슬전의 호양을 다할가 하여습더니
 익운니 불길하와 이지경 되어스오니
 뉘랄 원망하며 불충불효 막심하오다
 지하의 가와도 빅골지한니 뵈쳐스오니
 부람건디 불효조랄 심각지 마라시고
 만세무강 하옵소서 무슈히 의통하니
 그부모의 마암이 온전허리요 만은
 그모친 정정부인니 억만비한을 숨고
 아즈의 손을잡고 등을어라 만적
 가로디 디장부 세상이 나미
 충성으로 님군을 섬기고 효도로
 부모랄 섬기다가 니지경니 되어서니
 죽은들 무슴한니 잇스라만은 우리부부
 심전스후 뉘게다 의탁허리요 한모디
 장단의 효절하니 좌우창황 둥구하고
 구부치니 쏘티보의 나살한티 디고방성
 통곡하며 우리팔즈 엇지 니디지

무상하여 일적 혈육을 씌치지
 못하고 형장 게오세 신세을
 궁촉니 너기스너랄 오쇠의 슬양하면
 효성니 지극함이 금옥갓치 사랑하고
 이중한 스정나은 조식이나 다람이
 잇스리요 세월리 열유하야 니나으
 심팔세랄 당하여 몸니 용문의
 용리니 우리경스 비할디 업난둥
 국은이 망극하야 너의 충심을
 발미지 못니 지정을 당하것시니
 천덕무습 우리신처 궁척하나 네아람다운
 충성은 후세의 전하니 이엇지
 낙오심중을 불외하리요 그특단 하현이와
 우리어연 머지 안하여시니 절박한
 두목숨니 뉘기을 의지하며 후스난
 뉘기전할고 우리성장 일월지광과 명천일월과
 후로신영니 감동하스 우리부조 심전의
 다시보기 하소서 닐성장통의 퉁슈풍진의
 흐라나니 눈물니라 퉁보부친 슬허하심을
 보고위로왈 팔십노친 슬허랄잇고 스지에
 가난 조식을 심각하시와 니디지
 슬허하시니 죽어 구천의 도라가온들
 불효조을 면하오릿? 흑발부모랄 부탁할
 곳업시 영결종천 고별하난 조식을
 심각말라시고 부디 안심만셔 무강하압소서
 붓들고 무수히 통곡하거날 그부모
 아지을 위로하려 심스을 억져하고
 응교야 진정하여라 네나히 삼십니라
 영촉니 거려쓰리 천황으로 은스을
 넘어다시 도라오기랄 바라거니와 우리영광이
 조모의 닛쓰니 다시불줄을 엇지알니
 황천도라가 우리부조 스심의 닛기는
 정을 다아리니 부디 원노의
 안심잘가라 부인 니씨가 군을쌀을
 적소의 가려 시비충항을 다리고
 별노의 당하니 구고의 총통이승
 퉁슈눈물을 제어치 못하심을 보고
 차마가지 못하고 가국의 스을좁고

슬피통곡왈 슬푸드 우리니팔의 만나
 빅연기약 하였더니 할님니 총절니
 다도하스 빅옥갓탄 몸의 총형을
 당하시고 남북의 종천영별 원통코
 설운 스정을 엇지다 설화하오며
 당승학발 쌍친조식 불너 익통하난
 소리 초마엇지 닷스오며 오시공양하던
 효성 닐소의 허스라도 다의시
 업난이 몸의 뉘기을 의탁하오며
 동전왕비난 뉘라셔 구하오릿가 심각스록
 천지 막막하고 일월니 무광니라
 첩나이네 군을좃초 적소로가 만알분분
 횡하오시면 뉘를좃고 전하여 숨더니
 학발노친의 슬라고적 하신말 심각하와
 초마가뭇 갓가오나 부모님디 만세후
 이몸니 죽어 황천의 가압거던
 부디부디 초심의 늦기니 원흔된
 고향을 유령하옵소서 옥슈로 티보의
 뼈마남은 몸을 만치며 눈물니
 옥면홍안의 슈업시 허라난 거동은
 금수라도 슬허할네라 월천니 만타한들
 니부인눈물 갓탈소야 그눈물 모여시면
 혼강수되여 비랄타고 진도로 가련면은
 효조효부 닐난지라 부모을 심각하여
 가지못하고 년년불망 슬픈히포 써나난
 간장 부어좁고 무수히 통곡하니
 티보정신 아득하여 인스랄 분별치
 못하드가 게유 진정하여 부닌손을
 좁고 체업왈 부닌은 진중하소서
 엇지 병든 날을상케 하시난잇?
 안심하여 나의김핀 한흠 드러보소서
 하나이다 천슈요일 역으로 엇지니러
 하로릿가 평심소원니 총정으로 닐군을
 섬기며 효도로 부모을 봉양하며
 춘풍취화당의 부인으로 화락유조 심여하고
 동혈동유 하기랄 괴약하여 숨더니
 가운니 불행하압고 조물리 식기함으로
 이지경니 되어숨거니와 한낫 혈릭니

업스오니 가련한 것 님신세 어덕을
 의지호으며 삼춘화 독위 화거날과
 가을셔리 나리고 풍우딤작 허난밤과
 삼동광야 진진밤의 두견조 빗시되고
 추야오동석은 비소리의 슬피 혼숨짓고
 도라누을제 죽은 청산벽훈인들 비록
 유명니 다라오나 엇지일신을 잇스오릿가
 싱각스록 천지막막 호으며 정신아득
 혼온지라 당상쌍친 정성공양 날본다시
 그딤만 밋스오니 날후의 황천의가
 만나오면 혼혈을 가보오리니다 부인은
 만세무양 허압소셔 검닐 리별이
 영니별인간 하나이다호며 회랄금치 못호거날
 부닌니 망극한중의 심회을 지정호야
 위로왈 부모와 님군을 흥호로
 심기다가 퍽옥갓탄 몸의 참형을
 당호시고 절니원경 스지에 가오시며
 이딤지 슬허호기 난잇가 부딤안심호와
 무스이덕 달호시와 망극호온 천언
 바라스이다 부부의 의한슈회 엇지다
 하오릿가 호며 서로 붓들고
 더나결날 초마못호나 좌우보난 스람
 뉘안니 낭누호며 초목금슈 도라슬허
 하난닷 그거동은 초마보지 못할네라
 니판셔 쏘한 셔랑의 손을잡고
 체업왈 님의팔조 기박호여 한나조식을
 두지못호고 말련의 일여을 두고
 듀옥갓치 스랑호여 퍽셔함니 십산치
 안니호더니라 셔랄 어더니 싱전후
 위탁니 드딤썸이라 송신딤스을 미더더니
 흥진비리 아의제남의 못당할 경석을
 목견호니 노부의 죄악니 현셔의게
 밋쳐도라 노부의 신세 더욱
 가련한지라 슈식 님옥니라 일죽
 죽을 목숨니 언죄갓 보전호여다가
 여아의 평심 다현셔의 화익을보니
 철천지한 이골슈의 스맛초 만스무형이라
 엇지 목전의 당호리요 바라나이

흥노의 안심하여 천황으로 환쇠하여
 다시도라와 노부를 위로하라 하시며
 퉁슈양혁의 비랄 금치 못하거날
 퉁보더옥 비감하여왈 니다 소심의
 익운이오니 뉘랄 한하오릿가 넘머설허
 마암소서 하며 눈물을 금치못하거날
 니시 그부짚과 엇조오되 금부도스난
 어되 잇난닛가 노평안여 부난조스의
 잇스오니 치낙밤절을 금직니조 오나소서
 잇씩한님 한님이 혼혼정신증 비회랄
 금치못하여 명되 경각니라 부인니
 창황마극하여 한님의 마암을 위로왈
 한님의 신세 이리할가나 위국하여
 하압다가 독스온들 무슨한니 잇스오릿가
 다만 소소한 스정을 과도히
 심각하와 니되지 설허하오신니 첩니니저
 한님을 위하여 스살코져 하스나
 부모말연 신시와 님동시 일을
 심각하와 아적보전 하오니 연마하여
 황천어되 만나리닛가 천금귀치를 만보하소서
 한님이 흥미한 정신니나 부인니
 손을잡고왈 그되의 그요도난 님님의
 알거니와 이되지 감격하오니 비록
 독스와도 무슨한니 잇스올닛가 부인니
 다시문왈 진도난에서 얼마나 하니닛가
 한님왈 슈로슈철 이라도 고늑노로이
 천연니라 하난니라 잇씩 한님이
 부부만단 비회를 결화드 못하여
 일모서산하고 강촌의 노연이 빗기난지라도
 스술먹고 취형니 도도하여 극강정의
 좀니킵피 드러니 한님의 들닌난
 소리의 썩여더니 날낙셔산니라 되경하여
 즉시 남되문 밧기 나서니
 한님의 날가제족니며 지승니하 퉁을성들의
 전송초로 심스중니 가덕하엿 난지라도
 스형장을 지촉하여 질을 써날쇠
 별노노독한 송하닌민시 뉘안 낭누하리요
 퉁보정신 슈심하여 부모슬하 지비하직하고

친척을 이별하고 나오며 장안을
 도라보니 삼각산은 종종하여 님황산을
 호위하여 오뒤산 횡용으로 남산와연하다
 남산의 가련한 티보의 집이
 님근마은 다시보기 악니망연 하도다
 산티갓탄 슬픈심회 진정치 못하여
 님스을 분별치 못하난지라 그부이니
 할님을 니별하고 할님횡초랄 바라보니
 한강의 풍지 니려나며 기리적적
 머려 지난지라 양천탄식하고 집의
 도라와 부모을 위로하여니 그부모
 가련기을 바라보고 통곡하다가 아즈을
 부라고 고큐절하난지라 부인망극하야 쏘고절하니
 시비츄양니 통곡하여왈 일월성신 다황천후도
 실영은 감동하스 뒤감과 부인을
 회성케 하소서 악을 극진니하며
 님문친척이 다구하야 심도엇다 장안닌민이
 모라 쥬상의 불명하심을 한탄하더라
 초설 할님이 부모을 부인을
 심각하야 슈회을 니기지 못하야
 정신을 진정치 못하거날 밤니맛다룩
 위로하며 악으룩 구하다가 몸니
 곤하야 잠이깊피 드러더니 할님이
 아모리 심각하야도 살기 업난지라
 싸라온 하인을 불너왈 나난
 식악니 심하기로 청춘직흔니 되니
 엇지 원통치 안니하라 나죽거든
 니편지을 듀시뒤감기 더리라 하시며
 동축을 물니치고 금침을 갓초와
 누어시거날 동일리 아모리 할줄을
 모라시더라 할님이 동닐리 손을잡고
 눈물을 흘니시며 너난 님심복
 슈죽니라 나업다 말고 뒤감을
 지성으로 섬기라 하시며 한모뒤
 장탄의 성니 진하시니 슬푸다
 동일니 망극하야 발상통곡 황망중
 도스을 기운니 도스급피 니려보니
 이구구할것 업난지라 크게 통곡한후의

급쥬로 탐전의 쥬달하고 한님본가의
 흥음을 전하리다 더감과 부인
 할님을 이별후 식음을 전퍼하고
 셔상잇고 정하거날 니시 억만비원을
 초고 화성유어로 만단위로하야 구고랄
 밧드려 시음을 전하여 더감양위
 그즈부의 지성을 감동하야 하제하죄
 하시미 니시 침소의 물너온니
 적적한 공방의 명월은 비취여
 슈인의 슈심을 돕고 산야월
 두의견성의 한스람의 심회 간증을
 썩을지여 우난지라 니씨 심회를
 진정치 못하여 밤니밧다록 긴한숨과
 저월탄성으로 좀일웃지 못하시거날 추양니
 옛조오더 너머그리 마라소서 더감과
 더부인 슬하정경과 신세가런 하심을
 유형하와 상보전하압소서 날구월심 집푼한니
 골슈의 병니되고면 비록 불스약니
 잇스온들 엇지하오릿가 부인왈 네말니
 울으낫 할님 옥결갓탄 총절노
 몸니맞쳐 스경의 드러시니 꼭지고송을
 싱각하면 심장장을 썩혈닷니 밤을엇지
 녕구리 온눈물리 검치못하다가 적시니
 총양니 울며 위로하다가 잠이킵피
 드러난지라 부인니 비감중 침석의
 밧것더니 비몽간의 할님이 비몽간의
 손을 잡고왈 부인은 무슴중
 이딛지 도렷난잇가 이러나소서 그스히
 거립튼 정회를 설화하고 가스니다
 하거날 부인니 놀나 리니나
 할님손을 잡고반겨 문왈 니제
 만나시니 스침으 함기 하스이다
 어딛을 다시 가려 하시난잇가
 할님니 우어왈 닌의 무죄함을
 황천니 감동하스 세송풍진을 바라고
 전고충신을 짜라 황세로 귀경가나니
 슬푸다 부인니 기다리지말고 만쇠무강
 하압소서 부인니 더경왕 어딛을

가며시 기다리지 말나 하시니잇가
 엇지 송공은 그딤지 약손호오신잇가
 첩도 한시로 가스니다 하며
 할님을 붓덜고 못가게하니 할님왈
 부인은 안심호소셔 구구한 스정을
 엇지싱각 호오릿가 일후의 상봉호을
 날니 잇소오리다 하시며 썰치고
 나가거날 부인니 할님을 짜라가니
 엇더한 남조여닌니 의관을 정치하고
 셋거날 무류호여 방어로 드러가
 가만니 보니 엇지한 스람오륙인니
 할님을 옹위호고 그뒤의 학발노인니
 이갈견 야복으로 독장을 잡고
 오륙인이 가난지라 부인니 놀나깃다러니
 남가일몽니리 심신니 술난호야 몽스를
 싱각하니 분명 한님어 그세하시도다
 총양으로 더부러 못닉 슬허호더니
 동방님의 발그며 이화촌의 기짓난소리
 비희을 금치못호여 부모기 뵈을쇠
 못뵈갓 우람소리 들이거날 뒤감양위와
 부인니 망극호여 셔로뵈들고 호천통곡
 호다가 기절호거날 비복등이 겁피
 구호여 겨유 닌스를 초리난지라
 원근친척과 만조빅관이 다조문후 장안인만이
 뉘안니 낭누호리요 그러나 곡성이
 총천호니 엇지 천신니 감동치
 안니호리요 할님의 편지랄 써여보니
 호여시되 불효조 툃보난 두어조
 글노 부모슬하이 올니나니다 소조난
 국운니 망극호와 국사로 부모쳐지랄
 니별호압고 철니 우소의서 신병과
 심회 울적호와 구천의 도라가오니
 스람죄 숨천니오나 불효한죄 제릴니요
 닌삼천 수식목의 무류시압고 노중고훈니
 되엿소오니 구천의 도라가 엄난조식
 싱각지 말라시고 말연 기체를
 안보합다가 만쇠후의 우리보조 초싱
 늦거운 은정을 반의 날니나

풀기바라 압나니다 허더라 이날
 디감니 한노복을 거나리시고 즉시
 관천으로 향할쇠 장안익성니 안니오리업셔
 스람니 구림 못닷허더라 디감과
 식스 익통허십은 참아보지 못할네라
 초송범절을 네로써허며 금초로사 안장한후의
 날문니 익일의통 허더라 상니
 왕비랄 닉치시고 티보을 정비후로
 즈연 심신닛 불평허스 밤니면
 석닉의랄 미복으로 승형하시던니 한고딧
 다다라시니 명월은 링낭허고 북두칠성은
 비격난딧 원근산천 고요한딧 엇더한
 아히 오륙인니 월식을 히롱허여
 노력허거날 상니 몸을 은신허시고
 자시 더러신니 그노리의 허여시리
 저달은 박다만은 우리쥬상은 어니허여
 불명한고 등전은 무승닐노 관서의
 닉치며 응교난 무삼닐노 진도의
 정비하고 군의총성 업셔지고 부스호도
 쓸딧업다 삼강도 문허지고 오륜도
 슬딧업다 닉심은 분명컨만 난국운니
 말세로다 익성도 못할일을 국가의서
 횡허하시니 한심코 가련허다 슝년
 스직을 닉라셔 밧들이요 이야져아야
 흥망성쇠난 불관허다 당송부모의 미거셔라
 심산궁곡으로 초쥬가 초목으로 니웁삼고
 금슈로 벗슬삼아 세월을 보닌다가
 성군 거나리스 하며 서로
 잇글며 흑빈정기니며 서로 이련허거날
 상니 그노리랄 드라시고 심스을
 정치못허여 그아히 성명을 못고져허나
 이다 다라나 난지라 못닉
 알연허시며 환궁허시다 죄설 김춘틱니
 조면문장으로 왕비익옥 무화허심을 아논지라
 창선감의녹과 스씨남기을 지여 억만장안의
 들니고 각궁시여가 싸진딧 업실닐기
 상니 보시고 드러시게허니 상니
 즈로 드러시고 보신후 후회허시며

도스 김춘경니 박티보 독어말
 쥬달하니 상니 드라시고 더욱
 후회하시나 슬연니 헝치못하 난지라
 일일은 등닐밤이 당하미 월석은
 영농하고 등침청산은 등절니 심슈한닷
 만한지라 쇠로이 월석을 좇초
 망월누의 올누 원근풍성을 귀경하시더니
 즈연 심신이 슬난하야 누즈로
 날시며 점점 후원으로 순행하시다가
 한곳 별당을 다다라시니 밤은
 임의 숨경니라 궁둥이 요란하거날
 고히 녀니스 숨니 가간이
 몸을 은신하여 보시니 왕비중씨
 칩여인 궁여랄 거나리고 후원별당의
 좌쇠하고 동여랄 호령 민중전을
 자바드라라하니 좌우궁여 일시니 진소리로
 청영하며 날시 달려더려 민등전을
 쳐연이 나뉘하거날 상니 경아하여
 즈시보시니 이난 민씨가 아니오
 밋씨의 화상을 통통의 울여먹고
 분부왈 너랄 닉친후로 형별이
 무수하나 종시죽지 안니하니 엇지분치
 안니하리요 하며 좌우시여로 하여곰
 금장소리 진동하여 낫낫 고찰하야
 형장칙도랄 치후 다시 분분왈
 네만닐 스스로 듀지아니하면 다시
 즈바울여 엄학으로 헝하압분니라 스지을
 거역하고 간을닉여 분을 풀니라하며
 궁육으로 다시 가도거날 상니
 거시종을 다보시미 그제야 크기
 씨다라스 장시의 간계와 불촉한
 심스랄 아라시고 분괴을 이기지
 못하여 쾌쾌히 환궁하스 종야
 숨을 니루시지 못하시고 날쇠기랄
 기다리시더니 종노의 쇠복소리 들이며
 계명성니 나거날 도성지 닉신하기랄
 기다리 만조제신을 위로하시며왈 과닌이
 불명함으로 익미한 민씨을 닉치시고

앓가온 충신박티랄 독여시니 엇지
 원통치 안니허리오 증전민씨난 환궁허라
 하신 장씨난 육시허라 하시며
 티보의 무죄함을 무수히 스과하시거날
 상송허던 제신니 못닉 깃거하며
 다시 내려온 스빅후 만식을
 부처 더리라 니날 장씨를
 닐여버리라 하시니 장씨 비옥
 죄만스 무석니라 유왕즈 허오나
 소히죽여지 하게신니 간허디 그러허라
 하시난지라 장희빈 흥게 만하나
 장찰 엇지허리오 독기을 당허미
 장여울며왈 이럴니입의 발각허와 죽스오나
 모즈지정의 둥허오니 심면허고 독스오면
 한니 업나이다 허거날 그아달
 정종디왕이 비록 왕위의 체허여시나
 속종의 엄교하시니 엇지 괴못친을
 구하리요 장씨 그아달을 보고디로왈
 즈식니 왕으로 니시며 어미을
 구치못허니 엇지 제송의 두어
 전종게 허리요 하며 다려더려
 밋슬썩여 흥기 독어리라 하나
 좌우허나 좌우구허여 정종이 죽던
 아니허나 평심 무스허니 약허기
 이갓더라 차설 왕비 천만미한을
 먹음어 날을보며 충신니 자식으로
 연허여 독엄을 슬허허더니 천의명명허스
 흥진비라난 장여로 두고 아라미오
 고진감닌난 왕비로 두고 이람니라
 만조칙관이 위위할 갓초와 왕비환궁
 하시니 충신들 즐거함은 비릴디 업고
 왕비본톡 위엄은 상설갓고 장여부모난
 스약허고 제오라비 장의지난 제쥬로가
 삼식만의 스약허고 날문을 흥물허고
 소닌과 남닌은 낫낫치 버히라허고
 쥬송갓타여 위엄장안니 뒤집난닷 한지라
 무스덩니 한교디로 시형하여 남닌제상
 녹십여명을 다비히라 뉘한스람이 슬허하난죄

잇스리요 니궁의 님흐스 왕비랄
 디하여 답니 불명하여 왕비그
 춤화밋시나 국운니 불행한 타시라
 이죄 디하미 춤안하도다 왕비씨
 석덕왈 폐하의 실낙하시미 만흐와
 만신원망을 드러시니 첩의 둘곳시
 업스와 하암더니 이제회복 호오심
 만행이오나 조식의 악설 도라보시지
 아니시고 물논하시미 성단의 히로울가
 하나이다 잇씨 만조제신니미 님국신민의
 뉘안니 깃하며 만세를 붙어더라
 상니 박티부 무리니 죽이시말
 이연함회흐스 총신의 원혼을 위로코져하스
 나쥬목스 심형슈의게 호교흐스 세원짓고
 춤추로 제형하라 하시고 티보의
 벼슬을 도도오시며 이스람 총절을
 천추만세의 전케하라 하더라 티보의
 붓친을 님시하라 하신니 박세구
 도로혀 국은을 감축하여 님시한디
 상이 세구의 손을 잡으시고
 티보총절을 스러하시고 스제장 직첩을
 다리고 박세구의 종제 세환의
 초조로 디저학을 하시니 박장이
 국운을 감축하더라 쏘세광이 장조로
 디스경을 봉하시고 세구양위랄 위로하시며
 티보의 칭늑 업스말을 허하시고
 티보의 부인 니시로 총열분닌
 직첩을 주시고 세환의 초조로
 술양하여 후스를 전게하시니 일문니다
 국은을 감축하나니 시의 설움은
 쇠로이 망극하더라 상일니 티보의
 본일바라 부모와 님군을 총성으로
 섬기고 호양으로 섬기더라 그후로
 숙종티왕의 성덕니 일국의 가득하니
 일국신민을 화락흐스 국되미안하고 시화연풍하니
 초야칙성들이 노리하여왈
 어와 성은이야 티산갓치 뉘파서라
 천구 만니의 혼운니 버겨시니 천지도 황홀하다

삼강오륜니 분명하니 일월도 명낭후후다
 걸식포모 한신니로 제왕될돌 어니알니
 티박의 잠즌피공 천즈될줄 어이알며
 만신티적 초피왕도 팔천제즈라 죽기도고
 오강 저문날의 고힌될줄 어니알며
 아방궁 만니장성 청조될줄 어니알며
 위슈의 고기낙든 강티공은 문왕만나
 귀히될돌 어니알며 초당의 줌던공명
 승상될줄 어니알며 절아의 닌신왕비
 환궁할줄 어니알며 과천의 등은응교
 설원할돌 어니알며 불명하신 우리중상
 성군될돌 어니알며 초야 빅성들아
 티평성티 아닌가
 조정의 충신니오 여염의 열여로다
 순지 건곤니요 요지 일월니라
 광명황운 니별하니 양구비이 설음이요
 슈족을 쓴쳐시니 책부인의 설음이요
 성진을 니별하니 팔선에의 설음이요
 소상강 반죽지의 아황여영의 설음이요
 한님을 니별하니 이부인의 설움이라
 어와 창싱들으 성은만 맛지말고
 농업을 힘셔라 함포고복 경양가난
 쳐그의농 부곡이라 어와 성은이라 후더라
 죄결초야 티평후여 만설 억만세랄 바라더라
 정스원월 니십삼닐 동후의 다필셔 후오니
 시원섭섭 후도다

사향곡

세추 견신니요 계유 숨월니라
 올제 이별하니 춘풍이 소슬테니
 어나덧 환절하여 봄비슬 죄촉한다
 이화도화 만발하여 가가지 춘식이요
 흥미난초 난민한니 적적의 환풍니라
 황잉은 기기하고 빅설이 영영한티
 가련타 두견성은 불여기가 슬도다
 친촉의 잇슬제도 심스가 살난커던
 후물며 잇친지회 더욱일너 무엇하리
 거연 츠시의난 친척의셔 절기더니

금연 잇딤의난 물오와 외로잇셔
 쥬야경경 사모정은 여즈의 일신니다
 적막히 갖치여겨 귀근할길 전혀업니
 천망불급 칠척니라
 거츨작별 후올딤의 명춘의 다시오즈
 이별을 후올적의 금석갓치 언약하고
 사랑의 후진후니 현덕부인 우리조모
 말삼니 업스신니 아라 모라시나
 가득히 셤폰중의 옛일리 더욱섭다
 곁역니 엇더신고 당상학발 우리 무옹하오니
 손여랄 가득히 무홀후스 황송후다
 손여일신 사랑이 곱후시니 엇지후면 후도할고
 아모조록 곱후리라
 유도가 보족후여 불상후신 우리조모
 우리랄 기라실제 간신니 키워닉스
 출가랄 식니시며 죄미랄 못보시고
 이별시의 경계할제 향후나 득죄할가
 현부인은 범바더라 동동촉촉 조심하여
 그말숨을 이질소야
 불초한 니닉몸니 조흔부람 드리부려
 부모님의 익물되여 퍄평시절 만남던
 후도극진 후오리라
 별일딤쪽 광산김씨 곱후후다 우리형님
 스세세선싱 후손이라 심육세의 드려와셔
 유명후신 우익지정 후봉구고 극진후고
 고금의도 드물니라
 잇물무정 후온소제 정의가 퍄산인듯
 각별리 사랑후스 한시라도 못나셔
 칠닐만 분슈후면 셔사가 멋변인고
 칠연이나 되온다시 이러타시 지닉더니
 상별리 칠척니 되어서나 그리운 이닉심회
 안신니 돈절하니 누구다려 말을하리
 손을고 발랄헤고 명춘이 어셔오면
 정신초려 낫기헤여 귀령부모 하올딤에
 이련회포 페으리라
 무정세월 열류후여 전혀전혀 바라더니
 숨춘이 지닉셔니 괴약이 언제던고
 스투의 빗것더니 등촉을 받게혀고

의연니 우리스친 전후좌우 버려잇서
 스럼되여 허다마리 탐탐이 정회허며
 허마허면 못올너니 이안니 신통한가
 놀나쳐 싹다러니 허스로다
 상시 가압고 솜갓타면 엇지할가
 일일마닥 심스가 술난하여 동싱스촌 스오형데
 이회지심 비절허다
 어린족가 형데드리 언만나 스라나야
 둔슈한 옥골선풂 단아한 기상과
 안전의 버려잇고 쇠락한 옥성니
 부라난듯 되답난듯 이번의 칭칭허여
 통염불고 둥마타고 희희낙낙 제으등의
 이연니 반기면서 동싱숙질 적견난고로
 탐탐이 말허고져 강보의 쓰인디라
 영얼거려 오난형상 눈의삼삼 귀의징징
 엇지허면 이저볼고 답답하다 이니일리아
 원부모 형데도 전싱초싱 무슴친고
 사경의 일너시니 세상의 출가인이
 허다 하건만난 후송니 남조되여
 나흔잔듯 어니할고
 규장각 뒤계학의 늑경숨공 스야허고
 우리부모 규혹지은 슈령방씩 허울씨의
 반석갓치 편하시셔 효도격진 허오니라
 우리집 후원등의 거연 춘승월의
 화초을 심어더니 금춘 초시의
 낫낫치 발싱허야 슈인을 반기라고
 나심은 축휴화도 흥의 녹상으로
 허마라 불기잇서 춘식을 허롱할듯
 우리부모 위로하여 니의디신 네가허라
 니조최 가득허다
 지지협협 빅화전의 불길리 극난하다
 쥬인이 무정 너흔조 기락허니
 둔불고견 허난고나 닉싱각 전혀업다
 만화가 방창하니 경경이 슬픈심스
 이향한 나의심회 간장니 다죽난다
 문안을 모라온디 일일식니 넘어지면
 남창을 반게허고 향혀나 스람올가
 히비출 가리오고 이혁니 바라보니

슁정을 막혀 가려왔다
 첩첩한 청산들이 야속할스 우리당숙
 십비안의 오신그별 스고무치 나의소식
 반가의 듯건마난 못지도 아니시고
 그되도록 무정한가 신신부탁 만번당부
 이결한 나의편지 부딕부딕 오심소서
 날쇠랄 기달니나 이데난 허스로다
 소식니 망연하니 한촌건너 두촌이라
 부친의 아니신닐 이거시 뉘타시라
 당숙이 어니하라 아즈된 타시로다
 아마도 그리워셔 월월일일 시시간의
 눈물리 압을하여 잇조울길을 잇슬소야
 못느라 본가소식 상기가 칠십니이
 달달이나 드라시면 당당한 이니마암
 셔스로나 반기련만 닌눈의 언제불고
 청천의 명월은 고향을 보련만난
 무환총회 무회 강잉하니 아모혀도 이절소야
 닌싱각 하오소서 비난니라 우리부친
 이회포 폐압기로 부친을 밋건만난
 존구과 취품하여 엇지라 하시난고
 귀스을 청허리라
 미그한 나의운일 날진이 안보하고
 착하신 덕톡으로 사랑입 깊으시니
 무용지물 이니몸이 첸허반편 나썩인듯
 은희랄 모라오니 빅스의 미거하고
 예저리 소여하니 닌힘의 동동하니
 척망의 잇사련니 곳치그 어려운들
 흘물을 아니시니 금춘도 다진하고
 황공감스 증양업다
 스오월이 불원하니 양월간의 의논하여
 이연니 녍이소서 소여의 쓰닌회포
 부딕부딕 달여가오 식톡의 미닌몸니
 그련일을 싱각하여 본집의 더잇설가
 부딕부딕 다려가업 간절한 이스정을
 필연을 넘하오니 낫낫치 알고져
 뉘뉘무식 아여즈라 한마디가 아나나이
 부모님니 만연슈 호오시고 기록할길 전허업닉
 부귀공명 가득하고 조손니 장성하며

가문의 경스되여 문호의 빗치나고
쌍교을 빗겨타고 이리저리 단니시면
다각각 효도바다 층층한 조여부의
길강봉녹 여히하고 만디유전 흐소서
듀야축슈 바나니다
소여의 저근정성 염오닐의 필셔흐노라

답스향곡

미스관 월계당의 창외에 더된날의
춘면이 몽농하니 어나각니 되엇던고
만물리 화층하고 건방의 간치소리
빅설리 지쳐꺾제 놀니쳐 썩다려서
창문을 반게하고 유셔도 헛날이고
초연이 섯노라나 황조도 환후할제
금광성 두룽촌의 손으로 지점하여
우리식미 계신곳슬 멀니로 바라보니
빅운니 깊고깊고 소식일시 업셔스니
청송이 놉고놉파 말슴일시 디답할가
황손의 창두조리 신만을 못다보으
일봉설랄 더여보니 관곡기도 그지업고
이슴스 향초보니 성둥의 별곡조를
은근기도 조로할스 무엇시라 일흠할고
싱각이 몽스되고 귀귀마닥 정담이요
몽스가 무법되고 죽마닥 격언이니
진인의 유풍각도 조미의 쉼악시도
이글을 보답하고 아괴셔 싯틀손가
칠삭을 거린회포 강조방의 스향곡은
일편중의 가득하니 말노나 드럿더니
오날날 스향곡은 한두번 귀경사록
눈으로 귀경하니 진정을 알이로다
거러나 이니한말 인간의 허다닐별
짐작하여 더러보오 그만전만 더져두고
제몸의 알든니별 낙양성 선추풍의
디강만 헤울진디 빅스친도 잇셔스며
변숨슈유 소일니의 흐물며 여조몸니
오지형제 잇스니 그씨뿐 아니여날
간장석여 무엇하며 명문디족 후에로셔
심화그려 썩디업니

뭉침무욕 슈은하여 연광니 초오신후
 존당의 총총권이 고가현부 되어가니
 남딤도 그려하며 일문의 각각은혜
 화락하신 빅연김술 제마다 바랄손가
 니성이 무궁하고 당초 후신니드
 부귀 친정으로 이럴진딤 전장니니 만이 만니로세
 쏘무엇시 갈안호오 둥당의 양창시하
 혜원이 창성하니 만슈광 호오신중
 후진니 탐낙하니 현미갓탄 호팔조야
 필강의 소망딤로 다시어딤 구할손가
 갓가이 출가하니 양도난 분별하나
 당숙의 근처횡스 빅니가 못되것다
 못되것을 어니할가
 알과하신 그중의도 인편이 두무어도
 횡척니 축망닐쇠
 원아가 작어시며 심중의 잇난소회
 날갓탄이 비호오면 사스마다 조시하니
 도로혀 호강닐쇠 스안을 조심하고
 목하의 딤소상철 학박현친 우리부친
 오닉에 빗쳐시니 이럿딤 슬픈심회
 혈혈한 족작으로 어나곳딤 퓌올손가
 고문의 덜쳐올데 빅흙업고 안찬호야
 구고의 어진덕탁 소션이 미거터니
 잔지을 보호하며 종족일지 손님이 둥한몸이
 일심으로 하니 숙아의 동동커라
 잔닐의 우리 장을이던 반스라도
 영영히 기록하니 의논이 곳건호셔
 편셔 찬스라도 그나문 화초들도
 송독을 갖치할제 어니흔조 보을넉가
 후원니며 잔계상의 업난거손 어더두고
 각식으로 심어라이 닌난거산 난화흙쇠
 딤한시의 물들기와 제숫촌 엇더엇더
 세우중의 붓도도며 이풀은 무엇무엇
 숫싸셔 비교하고 썬난제 칠식만의
 풀씩기 싸옴호기 금춘승월 도라와셔
 이숫시 만발하고 숫숫시 다장한딤
 저풀이 향니나니 돌려 가련닛딤
 그스람은 안니오나 닉가 초마초마 더러시며

그공역은 남아시니 니가차마 썩겉소야
 작일화 극닐하냐 거연인 금연인도
 구강니 완연하니 호안으로 상봉하쇠
 봄은비록 자무오나 영원의 관흔길일
 풍국시절 도라오면 찬스기편 쉬울질니
 당상의 슈유어더 청춘소연 어진군즈
 귀령부모 호오실제 빅마후 흥청스후 의횡닐식
 연연한 낮비차로 눈물니 우숨되고
 흔흔이 안슈하면 우숨이 말니되야
 열당화슈 단회등의
 원망도 어딴가오 만단장회 폐올제난
 한탄도 업스시리 문안 알외오며
 어득분망 심우중 만첩정화 밀밀하오나
 제변이 압고연 니오나 양가정일이
 신익하미 여고딴 하든바 일횡무스의
 득정하와 여오스신 춘일기청일 화레하여
 구고의 순성영화로 감복하압고 오의현재
 일석의 봉착하오니 의옹화틱 출류헌닌
 뉴년이 전전하오니 만심니 희열평일
 바난닌 소원의 넘스오니 안히하례
 무궁무궁 특문경스 이밭도 업스을닷
 암암이 총찬 부리오나 석닐을
 세세추회 한죽쇠로 비감비절 여홀여숙
 하여나니다 슈연이오나 초시 선연의
 하솔하오셔 귀후여전 하오시고 침숙범저리
 여하시키고시며 귀공즈씨 다곤계분 만복감전
 하시여 평화현탈을 하오시고 김속스로
 기통하시와 심여불이시며 완장딴 청절일
 위만안들 하오심이다 소딘신예 하시와
 신인현철 하신듯 즈네여복 하시릿가
 각소딴 총절별히 업스오신닷 다히만
 만나시며 초인은 화닐심스 둥스고난
 업습고 존고 쥬기압셔 괴레후
 건강하오시니 복천니 압고이 부도시고
 히식만면 하시니 이두로 경스경스
 숙듀형제 분연연괴레 강영하시고 노경근친
 하시와 워저현 히소로 연낙하오시며
 완장딴이도 총딴분상증 부지하시니 다횡다횡

의현셔도 스빈심오중 안영호오니 든든우리
 현익씨 형제분 금동옥여 더부시고
 평화연낙 호오시고 어려제숙질 모첩호오시와
 승승니 소연낙절 괴시니 밀밀조로
 소니다 동서각닉 외분하솔 신기여승
 이시고 관동동쇠 셔방님 기셔도
 시동귀테 영압호오니 경히오며 귀중길마다
 종산출실 괴특괴특 죄당질부도 의회중
 안지하압고 우리아오와 타별고 달나호오니
 스정고의 우압습디 톱총절상 등저안호시
 고하디 지절총위 저절일 안이시고
 성변각탁 일위별히 업스시니 기횡니오며
 연이오나 무엇호시라 이갓치 과도니
 건연호오셔면 면인스 총의총의 호섯난잇가
 각식조미 밧조와 좌중천시 심각
 경스경스오나 두로관년 호오신 두로허
 불안불안 호오니다 에셔난 쥬효변이치
 모좌닌 침시 무형무식 괴괴호옵니다
 밧스장 듀일횡거 나리시고 무스이
 히정호오심을 우러압나니다 알의올 말솨
 남스오나 하정호옵니다
 을축원월 염닐닐 스호난 답상장

魚雁集

한번부지러니하면탄하에어려운일이업고
 一勤天下無難事
 堂 百忍家中弓泰和
 킷번차무면집가온딤티화잇도다
 ∞ ∞ 心內事
 悅與好人字
 光州郡
 癸酉四月夏五日
 朴太輔傳
 癸酉夏粧

본자료는 행정안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